

2005년도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고 재 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 미국 워싱턴대 환경공학과 졸업
- 환경처 기술개발과장, 교통공해과장
- OECD 환경국 근무(프랑스)
- 환경부 기술지원과장, 수질정책과장, 폐기물자원국장,
 국제협력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정책국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04. 3. 25 ~ 현재)

I. 머릿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세계는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국

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이며,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를 건설하고자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환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정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II. 2005년도 환경정책 추진방향

환경부는 올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 건설'을 목표로 5개 핵심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21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등 건강한 국토와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금년을 현행 대기, 수질 등 매체 위주로 되어있는 환경정책에서 생태계, 인간 등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전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확립해 나간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사회 전반의 녹색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제품의 생산·소비·사후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순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기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발 개도국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Ⅲ.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환경부는 한 해의 반환점인 6월 말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 등을 통하여 금년도 업무를 당초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전

우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과 중부권에 대해서만 제작되어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하반기에 영호남권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이다. 이 지도가 완료되면 전 국토의 보전가치등급을 500m 격자 단위로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10월까지 「특정도서관리 기본계획」과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대책」,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말까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대책」, 「전국 생태통로 설치 기본계획」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생태계 확보를 위해 종래의 단순한 녹지율 적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서식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11월까지 마련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두번째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환경질환과의 상호연계성 규명, 건강영향의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장기 로드맵을 담은 「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주변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탈레이트 등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조사하여 어린이용품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며, 10월에는 생산자,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제품 위해성평가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임산부 등과 같은 민감계층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위해성 규명을 실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화학물질배출량을 3년내('07년)에 30%, 5년내('09년) 50% 저감(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30/50 프로그램)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등 화학물질 다량배출기업 위주로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약 150개의 업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웰빙(well-being)문화와 함께 날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건축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 극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 특수 실내환경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3. 국민생활환경 개선

세번째로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

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06~'15)과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10개년 기본계획('06~'15)」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향후 10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기본계획('05~'14)」에 따라 1,8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47,000대에 대해 운행차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을 개조하며, '08년 규제수준인 선진국형 저공해 경유차 650대를 마을버스로 보급하는 한편 300대의 전기이륜차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수질오염원중 27.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지발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특히 가축분뇨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기타 소음, 악취 등 쾌적한 환경을 해치는 생활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중 생활소음 대책마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취문제지역인 울산지역에 25억원을 투입하여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악취물질이 주거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네번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환경관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여 온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을 10월까지 완료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친환경상품 구매 및 판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진흥원”을 7월 중순경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까지 약 7,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환경산업시장에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도, 중국 등의 환경시장을 조사·연구하며, 환경컨설팅업 신설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기물관

리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관리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06 추가대상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감량·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5개년) 및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교육 장기비전 및 목표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인원을 전년도 대비 50% 이상 확대(약10만명)하기 위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5.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족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대기오염-온실가스 감축 통합대기환경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제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하반기중 한-미 환경장관회의 및 한-OECD 환경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여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IV. 맺음말

환경보전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21세기는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로서 이미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이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선진환경국가 건설을 위해 200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무계획 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